

보도시점 (온라인) 2026. 8. 10.(월) 12:00
(지 면) 2026. 8. 11.(화) 조간

행안부, 폭염 속 민생 안정 최우선! 이동노동자 안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쟁거

- 범정부적 폭염 대응, 이동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
- 행정안전부-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0일(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김범석)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쉼터 운영 애로사항과 이용자 의견 듣고 폭염 안전 수칙 준수 당부

이번 현장점검은 기록적 폭염이 전국적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8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이동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무더위쉼터 접근성과 편의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쉼터 내부를 둘러보며 냉방기 가동 상태와 주말 연장 운영 확인 등 시설 운영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배달·대리운전 종사자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쉼터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쉼터 홍보와 위생 관리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쉼터를 이용 중인 이동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의 불편 사항 등 쉼터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애로사항과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중앙·지방정부와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현 폭염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고 있다”라며, “중대본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으로 중앙과 지방의 대응 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최소화과 이동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는 무더운 시간대에는 무더위쉼터나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주변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폭염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민관 힘 모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운영자소비자 모여 현장 목소리 공유

쉼터 점검에 이어 진행된 협약식은 민관이 힘을 모아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 상황 속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착한가격업소 방문을 더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물가안정 모범 업소로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에 12,645개 업소가 운영 중이다.

>> 배민 앱에서 착한가격업소 배달 주문 시 3,000원 할인쿠폰 지급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착한가격업소 온라인 홍보 및 이용 활성화, ▲배달 플랫폼 기반 할인 행사 운영,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 연계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협력사업 발굴 등 4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8월 17일(월)부터 배달의민족 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 행사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행사 시기와 참여 방법은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 ‘함께가게’ 전용관을 활용해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앱 내 상시 노출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배달앱 사용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 세무조사 유예부터 카드사 할인까지, 정부 종합 지원 지속

아울러,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물품 지원, 지방 공공요금 감면, 전기·가스설비 무상 안전 점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 세무조사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9개 카드사*와 연계한 2,000원 할인** 혜택 및 지도 앱 검색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방문 인증 챌린지 달성 고객에게는 순은 기념 메달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도 병행하고 있다.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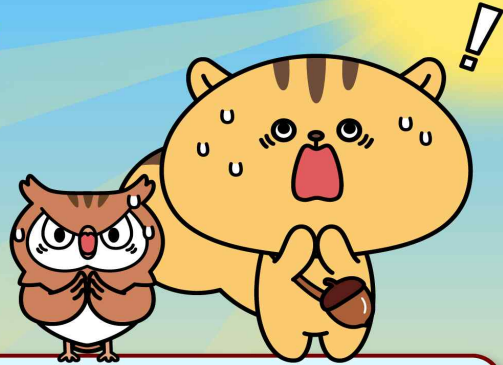
** 카드사별 할인 방식·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윤호중 장관은 “착한가격업소는 국민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소중한 가게들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물가안정을 이끄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 민족’을 활용한 이번 협력이 착한가격업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	책임자	과 장	채경아 (044-205-3902)
		담당자	사무관	김범유 (044-205-3914)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시설사무관	조호명 (044-205-6364)



폭염 6대 행동요령



본격적인 무더위
● 폭염특보 33℃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실내온도 26~28 유지**

시원한 장소 휴식

충분한 수분섭취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